

협회소식

2008년도 제1차 이사회

- 일 시 : 2008년 3월 7일(금) 14:00 - 16:30
-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대강의실
- 참석자 : 김태승(회장), 이은철(부회장), 광동철, 유왕준, 육근해, 이형구, 정동열, 정문택, 조순영, 홍기철, 이경구, 전희준, 이영한, 고화석, 권경상, 권영탁, 김재국, 정문영, 최호남, 이덕주(이상 이사) 윤성로, 임윤철(이상 감사), 이현주, 이용훈, 유태형, 신재은, 최정화(이상 사무국)
불참 : 남태우, 박명진, 서정욱(이상 이사)
- 회의안건 : 1) 2007년도 사업실적
2) 2007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승인
3) 2008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4) 2008년도 예산(안) 승인
5)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 승인
6) 제40회 한국도서관상(2008년도) 수상자 결정
7)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승인
8) 정관일부개정(안) 승인
9) 회관기금관련법안설립방안
10)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안)
11) 도서관단체운영개선특별위원회 설치·운영(안)
12) 명예사서증 수여(안)
13) 문화훈장 후보자 추천
14) 기타안건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 이경구 사무총장(상임이사) : 이사 23명중 20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림.

2. 개회선언

- 김태승 의장 : 2008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 개최를 알림.

3. 지난 이사회 회의록 낭독

- 사무총장 : 2007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유인된 회의자료를 참고로 낭독함.
- 의장 : 2007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문함.
- 2007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4. 안건 심의

안건 1 : 2007년도 사업실적 검토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7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함.
- 의장 :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결정사항] ·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2 : 2007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검토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7년도 결산내역을 보고함.
- 의장 : 2007년도 회계감사에 대해 임윤철 감사의 보고를 요청함.
- 임윤철 감사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7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개선사항

- 1) 우리협회 재원부족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회원의 회비납입률의 저조함에 있으나, 납부독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협회 운영진의 2차적 책임이 있음. 개인과 평생회원의 가입유도방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회비징수대책과 평생회비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2) 우리 협회의 업무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관의 개정을 재 건의함.
 - 3) 새로운 회계업무 시스템의 교체도입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4) 협회회관건립 기금사업 등은 시한과 목표가 확실한 합목적적이어야하며, 예측 가능한 기금모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의장 : 2007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2007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 이영한 이사 : 결산할 때 전년도 결산 대비 뿐 아니라 당해연도 예산대비 결산액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결정사항] · 2007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에 대하여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 정기총회때는 수입·지출에 대한 예산대비 결산액 제시하기로 함.

안건 3 : 2008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설명을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함.
- 의장 :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 정동열 이사 : 권익·협력사업으로 대정부, 대국회 협력강화와 사서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회원유치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함.
- 의장 : 그동안 우리 협회가 대 정부 비판기능보다는 한 몸처럼 가깝게 지내왔으나 앞으로는 회원중심으

로 비판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서자격증은 정부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회원가 입이나 수수료 받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함.

- 이영한 이사 : 한국도서관상 관련하여 감사패인 경우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로연수 들어갈 때 이임식을 다하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우니 미리 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함.
- 사무총장, 부회장 : 한국도서관상 규정에 대해 설명함.
- 의장 : 회원 의견을 고려해서 시상제도를 검토해 보겠음.
- 권경상 이사 : 공공도서관협의회인 경우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시상했음. 관장은 사서직, 행정직 구분없이 포괄적 개념이고 우리 협회가 도서관의 협회인지 사서의 협회인지 생각해야 함.
- 홍기철 이사 : 일률적일 수 없으니 협회 내부에서 먼저 의논하자.

[결정사항] ·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 한국도서관상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함

안건 4 : 2008년도 예산(안) 검토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설명을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함.
- 의장 :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물음.
이번에 달라진 것은 회관건립기금이 있음.
- 이사제위 :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 광동철 이사 : 수입부분에서 개인회비가 작년대비 약 40%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함.
- 사무총장 : 평생회원 확보 계획이 있다고 답변함.
- 부회장 : 회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광동철 이사 : 본인이 몸담고 있는 청주대인 경우 졸업식과 동시에 100% 회원가입시키지만 1년만 지난다 3%도 유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것을 요청함.

· 부회장 :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결정사항] ·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5 :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 승인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2007년 1월-12월 사이 가입 신청한 신입회원, 탈퇴를 신청한 명단 및 자동상실 회원에 대하여 보고함.

· 의장 : 2007년도 신입회원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2007년도 신입회원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결정사항] · 2007년도 신입회원 및 탈퇴·자동상실 회원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6 : 제40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 제40회 한국도서관상(2008년도) 수상자 결정

·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상신한 한국도서관상 및 감사패 수상자 검토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설명을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제40회 한국도서관상 및 감사패 수상자에 대하여 설명함. 감사패(단체)-뒤통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함

· 의장 : 제40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제40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결정사항] · 제40회 한국도서관상 및 감사패 수상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7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승인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승인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로 가입 요청

· 의장 : 안건에 대해 사무총장의 보고를 요청함.

· 사무총장 :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

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가입에 대하여 보고함.

· 의장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가입에 대한 의견을 물음.

· 이사제위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가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결정사항]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협회 산하단체 가입을 승인함.

안건 8 : 정관 일부개정(안) 승인에 관한 일

- 협회 정관 일부개정(안) 승인

-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설치

· 의장 : 안건에 대해 유인된 자료를 참고로 협회 일부 정관개정(안)에 관하여 개정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축조심의할 것을 요청함.

· 이사제위 : 협회 일부 정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축조 심의함.

· 정동열 이사 : 제5조 관련하여 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함. 현재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대외 위상이나 정부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수익사업을 하고 싶으면 협회 내부 또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자고 함.

· 유왕준 이사 : 정관에 넣고자 했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함.

· 사무총장 :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음. 이번에는 제외하더라도 정관개정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함.

· 의장 : 정관에 없는 수익사업(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 주시기 바람.

· 정동열 이사 : 정관에 넣지 말고 협회에 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함.

· 윤성로 감사 :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정부족으로 권익협력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사로서 현실적인 제안이었고 활성화

- 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함.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판단됨.
- 광동철 이사 :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자고 제안함.
- 권경상 이사 : 정관예문과 국고사업관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권영택 이사 : 상식적인 입장에서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했으면 함.
- 의장 : 정관에 넣기로 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함.
- 의장 : 제11조 2안 부회장인원은 평의원회의때 관종별로 부회장을 4인 두자고 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의장 : 제12조 명예회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권경상 이사 : 다른 비영리기관도 명예회장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고 보통 고문은 있으니 다른 단체 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의장 : 명예회장제도는 1958년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었음. 지난 총회때 명예회장을 추대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함.
- 홍기철 이사 : 명예회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의장 : 지난 이사회때 논의된 바 없음. 기간이나 권한은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음.
- 이형구 이사 : 협회입장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항을 신설해도 좋겠다고 함.
- 권영택 이사 : 명예회장은 기업에서 물러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협회의 명예회장은 잘 어울리지 않음. 고문이 좋겠다고 말하고 바꿀 것을 제안함.
- 의장 : 현 명예회장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업적이 많아서 전임회장이 제

안해서 지난 총회때 추대된 일로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권영택 이사 : 명예회장은 1명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 이형구 이사 : 한번 추대되면 종신인지 여부 문의함.
 - 권경상 이사 : 대부분 협회에서는 고문제도를 두고 있으니 고문으로 바꾸는게 타당함.
 - 윤성로 감사 : 작년에도 반대한 사항이었는데 전시행 후보원으로 협회에 대한 도서관인의 신뢰문제도 있고 자연스럽게 전임자 예우, 현회장과의 문제 등도 고려해 보자고 함.
 - 의장 : 정관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지, 불필요한 지 그리고 임기문제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보겠음.
 - 광동철 이사 :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윤성로 감사 : 임기를 한시적으로 두면 좋겠음.
 - 이덕주 이사 : 협회에 도움이 된다면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도 필요할 것임.
 - 유왕준 이사 : 용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 권한자는 회장인데 명예회장이 있다면 협회 운영에 대한 구속력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지난 총회에서 의결해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엔 명예회장에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는 넣지 말자. 앞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할 분은 고문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함.
 - 의장 : 정관 제12조안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겠음. 추후 명예회장도 임기문제로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 의장 : 정관 제20조 관련해 대해 설명함.
 - 사무총장 : 국고보조금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는 결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 사업진흥부장 :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결정사항] · 제출된 일부개정안 중 안 제12조 (명예

회장 등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정관개정위원회 설치를 승인함.

안건 9 : 회관기금관련법인 설립방안

- 법인(재단)설립 (1안)
 - 한국도서관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칭) 또는 도서관협회 발전후원회(가칭)설치(2안)
 - 의장 :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좋은 의견을 요청함.
 - 윤성로 감사 : 작년에도 안건으로 있었는데 재단설립은 반대했었음. 2안을 찬성함.
 - 권경상 이사 : 윤성로감사 의견에 찬성함.
 - 육근해 이사 : 재단법인은 한시적인지 여부를 물음.
 - 의장 : 회관건립할때까지 운영될 것임.
 - 육근해 이사 : 그렇다면 재단설립은 반대하고 협회 산하기구로 두는게 좋겠음.
 - 이형구 이사 : 조직을 별도로 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음.
 - 의장 : 재단을 설립해도 수익금은 협회로 보내고 협회 이사 중 과반수는 재단 이사로 활동하도록 하고자 함. 정관과 이사진 구성문제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구함.
 - 권경상 이사 : 별도 재단으로 설립하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기부금 확보가 어려울 것임. 또한 해산시 잔여재산도 국가와 지방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 의장 : 산하기구로 하더라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단이사장으로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음.
 - 최호남 이사 : 1안과 2안을 심도있게 의논할 것을 제안함.
 - 의장 :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음. 활용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결정사항] · 협회내 별도조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되, 그 명칭은 '도서관발전재단'으로 하기로 함.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관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함.

안건 10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안)

- 의장 : 안건에 대해 설명함.

- 이사제위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 [결정사항] · 인사위원회를 구성안을 승인함.

안건 11 : 도서관단체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안)

- 의장 :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요청함.
 - 이사제위 : '도서관단체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
- [결정사항] · '도서관단체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함.

안건 12 : 명예사서증 수여(안)

(권양숙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께 명예사서증을 드릴 것을 제안)

- 의장 : 안건에 대해 설명함.
 - 이사제위 : 명예사서증 수여(안)에 대해 안건을 심의함.
- [결정사항] · 명예사서증을 드리는 안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진행은 회장에게 일임함.

안 건 13 : 문화훈장 후보자 추천

이인표(전 사회과학도서관장), 이춘희(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원호(전 협회 사무총장)

- 의장 : 안건에 대해 설명함.
 - 이사제위 : 문화훈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 안건을 심의함.
 - 의장 : 이인표님은 이미 문화훈장을 수상했고 이춘희님과 조원호님의 순위를 결정해 주기를 요청함.
- [결정사항] · 이춘희(1순위), 조원호(2순위)로 후보자를 결정함.

14) 기타안건

- 정동열 이사 : 차기 회장선거 방식에 대해 질문함.
- 의장 : 2006년 총회에서 직선제를 반대했는데 부결된 안건을 또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광동철 이사 : 평의회에서 선출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함.
- 사무총장 :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겠음.
- 이형구 이사 : 선출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임원선출이 어려울 것임.
- 의장 : 평의회 소집하여 후보자 추천하고 선출방식은 평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함.

- 정동열 이사 : 전회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IFLA 방식 채택 필요함.
- 의장 : 회장 직선제는 시기상조라 생각함. 투표권 문제도 있고 시간, 비용이 소요됨. 차기회장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권경상 이사 : 지역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협의회 등을 활용하자고 함.
- 이형구 이사 : 직선제로 하면 회원들간의 갈등이 생기는 단점이 있음.
- 권경상 이사 : 간선제로 하되 전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면 좋겠음.
- 의장 : 평의회회 소집해 불 사안을 검토하는 문제는 사무국과 의논하겠음. 직선제의 장·단점, 파벌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예산, 시간, 절차가 까다로움. 또한 2년이 안지나서 다시 직선제 안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부회장 : 평의회회에 후보 등록하자고 제안함.
- 의장 :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하도록 조치하겠음.
- 보고사항
 - 의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인의 많은 협조로 존속됨을 보고함.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기획정책위원회 2008년도 제1차 회의

- 일시 : 2008년 2월 28일(목) 14:30-16:30
- 장소 : 우리협회 사무국 사무총장실
- 참석 : 윤희윤(위원장), 김지봉, 장덕현, 정현태, 조영추, 최희윤(이상 위원), 이경구, 이용훈(이상 사무국)
불참 : 김태식(위원)
- 회의안건 : 1) 협회 2007년 사업결과 검토
2) 협회 2008년 사업계획안 검토
3) 정관개정안 검토

- 4) 회장 선출방식 변경(안)
- 5) 한국도서관회관건립기금 운영(안)
- 6) 인사위원회 운영(안)
- 7) 도서관단체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안)

• 회의내용

- 1) 협회 2007년 사업결과 검토
 - 사업진흥부장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바 제출한 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 없음.
- 2) 협회 2008년 사업계획안 검토
 - 사업진흥부장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지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시·도 단위보다 좀 더 큰 광역단위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있을텐데, 앞으로 지구협의회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정리나 지침이 필요할 것임.
 - 사무국 체육대회보다는 직원연수회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지적인 사항을 참고해서 2008년 사업계획을 다시 정리하기로 함.
- 3) 정관개정안 검토
 - 사업진흥부장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사업(제4조)에서 새로 추가한 사업인 '12.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제4조)의 하나인 '7. 도서관 용품의 규격화 및 그 보급'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7. 도서관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제정·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 사업(제4조)의 '8. 도서관 관계 자료실의 설치'보다는 '8. 도서관 관계 자료실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 안 제11조(명예회장 등) 제3항에서 추가하고자 한 명예사서 추대 근거조항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치가 적합

하지 않은 바, 대신 사업(제4조)에 '12. 한국도서관상, 명예사서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명예사서 추대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서관상 시상 권위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 안 제28조(서면결의)로 이사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무 이사제도 등의 도입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검토를 하면 좋겠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전면적인 정관개정 논의 때 신중하게 논의하기를 바람.

·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이사회에 안건 제출시 일부 수정하기로 함.

4) 회장 선출방식 변경(안)

·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김태승 회장께서 본 안건은 이번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함.

5) 한국도서관화관건립기금 운영(안)

· 사업진흥부장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별도의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협회 내 조직으로도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꼭 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형식이 아니라더라도 여러 대학에서 설치 운영 중인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도서관 협회발전후원회(가칭) 같은 방식으로도 협회 발전이나 회관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여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별도 재단 설립안 뿐 아니라 협회 내 별도 조직을 두어 기금 확충과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위원들의 의견과 권고를 반영해서 이사회 안건에는 협회 내 별도 조직을 두는 방안을 제2안으로 해서 제출하기로 함.

6) 인사위원회 운영(안)

· 사업진흥부장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위원구성에 있어 직원대표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이 좋겠음.

- 직원대표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은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7) 도서관단체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안)

· 사업진흥부장이 설명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위원구성에 있어 사무총장이 빠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논의의 효과를 위해서도 사무총장을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독서문화위원회 2008년도 제2차 회의

· 일시 : 2008년 3월 6일(목) 14:00-16:00

· 장소 : 우리협회 사무국회의실

· 참석 : 황금숙(위원장), 곽현주, 박순해, 서계녀, 최지혜(이상 위원), 신재은, 최정화(이상 사무국)

· 불참 : 김수경, 김정근, 이권우(이상 위원)

· 회의안건 : "청소년독서캠프(시범사업)" 관련 자문

· 회의내용 : "청소년독서캠프(시범사업)" 관련 자문

· 계획(안) 검토 및 검토의견

- 캠프 관련 어린이 프로그램은 많은데 비해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 수가 적으므로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소외계층 청소년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 캠프의 운영이 처음임을 생각하면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에서 참가의지를 가진 희망자를 선발하여 참가하는 것이 좋겠음.

- 참가자가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구성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좋겠음.

- 반별 담임이 대학생 두 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

서와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으나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임. 따라서 사서 1명과 대학생 1명으로 각각의 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사서들에게 지도자 양성반을 따로 구성하여 캠프 기간 내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캠프 기간 중에는 담임이 되어 학생들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고 캠프 기간 이외의 시간을 별도로 내어 워크숍 등으로 지도자 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임. 사서가 단순히 강의식 수업을 듣는 것보다 학생들과 함께 직접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효과가 큼.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진(사서 포함)들의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므로 사서워크숍 개최 등의 교육을 지도자 양성교육으로 대체하면 됨.
- 계획(안)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 재미있는 프로그램(책을 활용한 놀이, 활동, 연극 등)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야 함.(고무신(프로그램 개발), 최지혜 위원, 학교도서관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추천함.)
-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활동은 반별로 진행할 것인지 참가자 전체가 함께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 선정인데 어떤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어려운 책 보다는 쉽고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책(성, 사제시간, 친구관계 등의 주제)으로 선정해야 함. 또한, 참가자들이 읽은 책을 한 권씩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보고서는 캠프를 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도서관들에게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결과보고까지 모두 담아서 제작되어야 함.(각종 교육 및 워크숍, 준비상황, 캠프기간 내 일지 등 모두 포함되어서 한권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 사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함.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 제3차 회의

- 일시 : 2008년 3월 10일 10:00-13:00
- 장소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실
- 참석자 : 김태수(위원장), 강순애, 김기영, 서은경, 오경목, 정동열(이상 집필진), 심효정, 박지영(이상 간사)
- 회의안건 :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신규 용어 범주
2) 차기 일정 논의
3) 기타
- 회의내용
 -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신규 용어 범주
 - 개정 방향 및 범주 분류 기준
 - 서지 분야에서 서양 장정 관련 용어 제외
 - 로컬 용어 제외
 - 기본적인 방법론, 출판 관련 용어는 포함
 -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도 도서관 소장 자료와 연관성이 있으면 포함
 - 다음 회의부터는 실제 용어 사전 편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려사항(애로사항 포함)을 정리하여 논의
 - 우리나라 기관이나 도서관 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용어 추가 필요
 - 국문에 해당하는 한자 표제어는 이미 있는 경우에만 표기(새로 만들지는 않음)
 - 표제어는 한글 원칙이며 영문과 한자는 부기
 - Harrod와 같이 표제어에 대해 세부범주를 지정하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만 표기
 - 용어 편집은 엑셀로 작업한 후 한글 2007로 편집
 - 2) 다음 회의
 - 4월 18일(금) 11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관장실
 - 3) 기타
 - 신규용어 범주 지정
 - 집필계약서 배부
 - 기존용어와 신규 추가용어를 통합하여 배포 예정(용어 취합이 완료된 이후)
 - 용어 편집을 위한 템플릿 배포 예정(용어 취합이 완료된 이후)

협의회소식

국공립도서관협의회, 제49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목)과 25일(금) 양일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1층에서 제49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도서관직원의 자질향상과 대학도서관 간 정보교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세미나는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50개 회원교에서 약 13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초청강연과 주제발표 외에도 관련업체의 대학도서관 업무 및 서비스 관련 최신 기술동향 소개, 제주대학교 총장 주제 환영만찬, 문화탐방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초청강연>

- 제주도와 한반도/고광민(제주대학교 학예연구사)

<주제 발표>

- 대학도서관의 홍보실태 및 발전 전략: 서울대학교 도서관 테마도서관을 중심으로 /최미순(서울대학교 사서)
- 성과평가 및 조직개발을 통한 대학도서관 조직 활성화에 관한 소고 : 국립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김형각(강원대학교 사서)

·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 방안 /오영기(제주대학교 사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41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2월 21일(목)과 22일(금) 양일간 고려대학교 CDL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승인, 임원개선안, 정관 개정 등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신임 회장으로 김암 관장(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이 선출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년퇴직을 하는 전병권 사서(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정보실 실장)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었다.

22일(금)에 “의학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트렌드와 사서의 역할”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은 77개 회원기관에서 약 13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 및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특강>

- 질향상 활동 사례 : 비진료 부문/이순교(아산병원 PITM)
- 위,식도 역류질환 강좌 : 흡사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 오진 않으세요?
/이풍렬(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장 겸 소화기내과 교수)

<발표>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효율적인 운영방안/박정희(의도협 기획위원장)

<워크숍>

- 주제 : 의학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Trend와 사서의 역할
- 근거중심의학의 개념과 · 발전과정/안형식 (고려대학교 교수)
- 정보 요구에 따른 사서의 행태 : 소규모 의학도서관 사례 발표
- 고객을 알고 나를 알자 : 이용자의 마음 속속들이 파헤치

기/이수정(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정보 요구에 따른 사서의 행태 : 소규모 의학 도서관 사례/배연정(일산백병원)
- 근거중심 간호와 새로운 의료정보 이용서비스 개발 /장금성 교수(전남대학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신입사서교사 연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 이덕주)는 2월 23일(토)과 24(일) 양일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공동주최로, “2008 신규사서교사 연수: 학교도서관에서 희망을 꿈꾸다”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는 이덕주 회장의 인사말씀과 우리협회가 이경구 사무총장의 축하인사가 있었다. 2008년 신규사서교사 및 2006, 2007년에 임용된 사서교사 중 희망자들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날 연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80여명의 사서교사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참석한 사서교사들은 공통강의 외에 본인의 소속에 따라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 강의와 모듈토론 등에 참가하였다. 또한 선배 사서교사들도 참가하여 새로 임용되는 사서교사들을 반기고, 지역별로 선배사서교사들과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프로그램

- 학교 교육의 한계와 희망 찾기/고병현(성공회대학교 교수)
- 도서관 한해살이, 이렇게 해봐요!
/이선영(경기 청암초등학교), 염보영(경기 성곡중학교)
- 행복한 도서관 이렇게 운영해요!/이성희(인천 예일고)
- 선배와의 대화 : 지역별 모듈토론
- 사서교사의 수업, 무엇을 하나요?/박순혜 (서울 영일초등학교)
- 학교도서관 활용 협력수업/이명은(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 사서교사론 - 우리가 희망이다/이덕주(송곡여자고등학교)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개통 및 신입 임원 출범식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http://www.braille.or.kr/>]

2008년부터 우리협회의 산하협의회로 함께 하게 된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신인식)의 홈페이지 개통 및 신입 임원 출범식이 3월 14일(금),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을지로 입구)에서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실과 정화원 의원실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각장애인도서관 목록의 디지털화에 따른 시연이 있었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이경구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간담회 개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3월 7일(금) 한상완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존치 등 현안사항과 향후대책 등에 대한 논의 및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월 19일(화), 안인자 교수(동원대학)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전략팀,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서관통계는 지역보다는 관종의 의미가 크므로 시범사업단계에서부터 모든 관종의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통계 및 정보화현황 조사를 조사지 및 실시시기를 조정·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 및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2008 도서관운영 평가 표준지표 개발 연구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008년 2월 23일(토)부터 3월 14일(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상복 교수(대전대), 차미경 교수(이화여대) 등 공공도서관 연구팀과 기획단 실무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15일(금)부터 3월 20일(목)까지 4차례에 걸쳐 광동철 교수(청주대) 등 연구팀과 기획단 실무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도서관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평가 프로세스, 현행 지표의 타당성 및 이용자 설문조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사제공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문화』는 회원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도서관문화』에서 다루어지는 아래 주제에 대한 회원여러분들의 옥고(玉稿)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도서관 소식
- 회원들의 인사동정
-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실무와 학술이론 등에 관한 논문
- 도서관계와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 기타

《보내주실 곳》

전 화 : 02-535-4868

팩 스 : 02-535-5616

E-mail : libculture@kda.kr

주 소 : (137-702)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60-1

회원협력팀 『도서관문화』 편집담당자앞

국내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장 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권경상)은 2월 21일(목)과 22일(금) 부산 한화리조트(태종대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장 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워크숍에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관장, 장애인도서관 관장, 협력업무 담당과장, 시·도청 및 교육청 도서관 담당과장 등 관계자 380여명이 참석하였다.

■ 프로그램

<주제발표>

-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연구
/서혜란(신라대학교 교수)
- 공공도서관의 전문사서 유형개발 및 제도 도입방안
/안인재(동원대학 교수)
-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대체자료 지원 방안
/손종명(한국시각장애인지원센터 부장)

<특강>

- 설화를 통해 본 한·일 문화교류
/김찬희(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 교수)
- 수준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READ 프로그램)
/박종주(교보문고 교육사업팀 과장)

<발표>

- 협력형디지털레퍼런스서비스(CDRS)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성정희(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 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여유숙(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활성화 방안
/이선화(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사례발표>

- 공공도서관을 통한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김정규(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사서)
- "대한도서관인공제회" 설립 추진(안)
/기민도(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기사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운영협력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광주광역시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광주광역시에 건립된다. 2009년 착공, 2011년 하반기 완공될 광주분관은 1천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3천㎡의 부지에 연면적 4만㎡ 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 분관에는 자료보존관, 열람실, 소공연장, 전시실, 지역특화 자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자료와 역사·문화자원 등을 수집, 관리하는 국가도서관 기능에, 전통예술과 민주인권, 민속자료 등 지역특화 도서관, 지식과 정보서비스 등 일반 도서관 기능까지 겸하는 매머드급으로 건립된다.

광주광역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이 호남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의 기능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이룸으로써, 호남권의 새로운 문화창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3월 6일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경기도내 공공도서관들을 지원하고, 경기도차원의 도서관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2월 26일(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도내 도서관과 관련된 소식, 도서관을 위한 도의 정책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서관 담당자들이 홈페이지의 관리자기능

을 통해 입력하는 각종 도서관 관련 통계 및 행사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도서관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한 것으로, 개편에 따라 홈페이지에 자료마당과 정책마당, 알림마당, 참여마당, 도서관마당 등 5개 콘텐츠가 새롭게 운영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golibrary.go.kr/>]

고양행신어린이도서관, 외국인 이주여성 교육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분관장: 이도연)은 우리말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통한 한글교육과 독후활동 등 독서교육이 가능하도록 자녀독서 지도교실을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도서관 이용법, 좋은 동화책 선택법, 동화책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 독후 활동법, 동화를 통한 자녀 한글지도법,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법 등으로, 교육생들이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동화책과 이를 아시아 6개국 언어로 번역한 Asia Start 도서를 함께 활용해 독서교육과 이중언어교육 및 다문화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신청자격은 고양시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으로 교육기간은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간(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1시 30분)이다.

[문의: 행신어린이 도서관, 031-931-2137]

공주시 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오픈

공주시 시립도서관(관장: 정재욱)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새 단장하고 전자책 서비스를 개시,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 밝혔다. 전자도서관은 일반인을 위한 문학, 에세이, 경제, 컴퓨터, 외국어 등 총 2800여종의 전자책과 명사들의 강연을 수록한 북세미나 48종, 사이버학습이 가능한 E-learning 219종, 오디오북 20종, 어린이를 위한 키즈북 121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전자도서관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gongjilib.go.kr)에 회원가입 후 전자도서관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기사출처: 중도일보 2월 25일자]

노원정보도서관, 연구하는 사서모임 개최

2월 27일(수), 노원정보도서관(관장: 박미영) ‘연구하는 사서모임’은 도서관 인력의 핵심인 사서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인식, 정보의 제공자에서 정보의 생산자로 변화된 사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노원정보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지역사회와 도서관”이라는 주제(강사: 박현주 과장(인천광역시 화도진도서관 문헌정보과))의 강연회를 했다.

[기사출처: 노원정보도서관 문화기획팀, 02-950-0064]

달서구립 도원도서관, 초등자료실 개설

대구시 달서구립 도원도서관(관장: 강병걸)은 2월 25일(월) ‘초등자료실’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초등자료실’은 1층의 문화교실과 수서실을 통합하여 개설되었으며, 1만5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또 유아들에게 자유로운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 자료실을 유아전용 자료실로 새 단장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북스타트 책꾸러미

전달, 아름다운 동화이야기 등의 유아독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대구신문 2월 27일제

대구두류도서관,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운영

대구두류도서관(관장: 정외태)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신장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2월 19일(화)부터 연중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공부방 프로그램'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심층적이고 안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협약을 체결, 삼성증권자원봉사단, 큰나무 자원봉사단의 노인과 참가아동의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 대구두류도서관 열람봉사실, 전화: 053-650-0221~3]

기사 및 사진출처: 데일리안 3월 19일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그림을 만나다” 개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관장: 이우정)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술평론가 조이한, 진중권과 함께하는 “인문학, 그림을 만나다”란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총 8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그림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젠더, 사회학, 심리학, 기호 등 인문학적 개념을 통해 그림에 숨겨진 의미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홈페이지(<http://www.L4D.or.kr>), 연락처: 02-960-1959]

기사출처: 뉴스와이어 2월 26일제

부산시민도서관-국가기록원, 문서보존 협력키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김삼상)은 3월 11일(화),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관장: 김창수)과 귀중한 문서 및 도서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립시민도서관은 문서보존을 위한 특수 기자재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록원 측으로부터 각종 장비를 지원받는 한편 문서보존 기술 등을 전수받아 부산지역 20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16만여 권을 보존처리할 계획이다. 시립시민도서관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받아 고문서와 해방 전 장서 가운데 훼손이 심각한 200여권을 소독·탈산화처리하고, 중성지를 이용한 보존상자를 제작해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3월 7일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 가동

3월부터 부산지역 11개 공공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통합 관리되고 시민들도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과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근)에 따르면 부산지역 11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와 각종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도서관의 독서회원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해 구

축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가동하여, 11개 공공도서관 중 어느 곳에서 검색하더라도 원하는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도서대출과 반납도 11개 도서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 서비스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들어가 산하 11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20여만권의 자료를 정리하고 35만명의 독서회원 정보를 통합하였으며, 도서대출과 반납이 어느 도서관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반납된 자료의 정리를 위해 도서관과 도서관을 순회하는 도서운반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월 24일제]

어린이도서관 '짜장', 개관 1주년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다목적복지회관 1층에 위치한 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 (관장: 김머징)이 2월 22일(금) 개관 1주년을 맞이하였다. '짜장'은 '진짜' '정말'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지난해 대전여민회 '동화읽는 엄마모임-아름아리'가 주축이 되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촌동 주민자치센터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민간 어린이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도서 대출 뿐만 아니라, '그림책 읽는 모임', '책읽는 오두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이 책을 가까이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짜장: <http://cafe.naver.com/jjajang>, 연락처: 042-226-3534]

[기사출처: 충청투데이, 2월 21일제]

울주군, 아파트단지 곳곳에 '미니도서관'

울산시 울주군이 '책 읽는 도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미니도서관(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니도서관은 따로 도서관 건물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문화공간에 작은 문고를 마련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아파트나 아파트 밀집지역이면서 공공도서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파트 가운데 자체 공간(50여㎡ 이상) 확보가 가능하고 300가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3월 19일제]

익산시, 훈훈한 도서관 개관

익산시(시장: 이한수)에서는 책 사랑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책을 볼 수 있는 '훈훈한 도서관'을 3월 17일(월) 영등동 외환은행 사거리 버스정류장에 만들었다. 버스정류장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조성된 훈훈한 도서관 개관식에는 이한수 시장과 최태정 기획행정정보부장 등 관련 공무원과 시민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익산시는 이번 1호점 개관에 이어 광병원 앞과 익산역 주변 등에 추가로 훈훈한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비치될 책은 공무원들의 기증운동을 통해 1,500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과 기업, 출판사, 대형서점 등에 잠자는 책 공유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추가로 장서들을 확보하고, '책 사랑 경진대회', '독서1·1·1운동', '북 크로스 운동' 등을 전개해 책읽는 도시 익산을 꾀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전라일보 3월 17일제]

전주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보행상 이동과 건축물 접근상의 어려움으로 문화욕구충족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 도서 재택 대출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전주시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서 재택 대출서비스 이용자

는 월 2만원(본인부담 2천원)의 바우처를 제공 받으며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대출신청은 전화,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도서를 미리 신청하면 1회 4권(월 10권 한도)까지 직접 방문 대출과 수거서비스를 하며, 실제 운영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관장: 송경태, 063-288-9083)에서 한다.

[기사출처: 전주시청 2월 26일제]

창원도서관, 소외계층 및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창원도서관(관장: 김양중)은 소외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사회통합 유도 및 평생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11억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외계층 및 주말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가 주관하며, 창원도서관이 경남지역정보센터로서 경남도내 소재 신청 기관 1차 선정평가 및 사업추진기관에 대한 운영 점검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 추진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단일프로그램의 경우 600만 원, 주말프로그램 1000만 원, 종합프로그램 3000만 원이 최대 지원될 예정이다.

[문의: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ll.or.kr>), 경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nle.go.kr>), 창원도서관 홈페이지(<http://www.changwon-lib.or.kr>) 평생교육정보센터]

이 외에도 창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제1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일선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장 연합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

수, 작가 초청강연회, 찾아가는 도서관 활동 등 학교도서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워크숍 및 체험활동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경남일보 3월 19일자, 마이뉴스코리아 3월 7일제]

천안시, 2020도서관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천안시(시장: 성무용)에 테마형 도서관 2개를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16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도서관협회(책임연구: 이상복)는 2007년 ‘천안시 2020 도서관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인구 100만명 계획을 기준해 모두 16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권역별로는 중심 생활권에 9곳, 북부 생활권에 4곳, 동부 생활권 2곳, 남부 생활권에 1곳을 제시했다. 또한 ‘캠퍼스 라이브러리(가칭)’, ‘스포츠 라이브러리(가칭)’ 등을 제안했으며, 아울러 천안중앙도서관을 충남의 대표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 연계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2010년까지 북부도서관과 신방도서관을, 2015년까지 청수도서관, 직산도서관, 입장도서관, 풍세/광덕도서관을, 2020년까지 캠퍼스 특화 도서관, 스포츠 특화 도서관, 중앙도서관 등을 연차별로 건립할 계획에 있다.



[기사 및 사진출처: 충남시사신문 2월 21일, 26일제]

한수풀도서관, 새단장 개관

한수풀도서관(관장: 고병룡)은 2월 21일(목),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 등의 공사를 거쳐 새 모습으로 단장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총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공사를 통해 한수풀도서관은 내·외벽이 새롭게 도색됐고 3층의 종합자료실은 150㎡로 증축됐다. 또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야외에는 지압로도 조성됐다.

한수풀도서관은 지난 1990년 12월 3일 개관했다.



▲ 한수풀도서관에서 조성한 야외 지압로

기사출처: 제주투데이, 2월 25일자

목원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최병갑)은 새학기를 맞아 도서관 2층의 비활용 공간이었던 복도와 로비를 리모델링하고 3월 5일(수)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관 2층 리모델링은 대학 내 중추적인 연구 및 정보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확보 및 이용자중심의 도서관 마인드 변화에 따른 도서관 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연속간행물실과 참고자료실을 통합하고 열람석과 서가를 추가로 배치했다.

목원대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정보지원센터로서의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원룸 형태의 공간에서 동일주제의 다양한 자료(참고도서, 잡지, 논문 등)를 동시



에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연구나 학습활동 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출처: 중도일보 3월 13일자

김해, 첫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개관

‘책읽는 도시’ 시책을 추진중인 경남 김해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발적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3월 18일(화)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진례면 진례중학교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김해시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비 7천만원과 자체 예산 2천만원으로 교실 4칸 264㎡를 리모델링해 5천여 권의 책과 컴퓨터 40대를 갖춘 학교도서관을 마련했다. 이 도서관은 학생들은 물론, 평일과 방학기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해 자료실 열람과 도서대출 서비스를 실시하며 작가초청 강연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3월 18일자

인천시교육청, 공공-학교도서관 연계 도서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올해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20개 초·중·고교의 도서관 운영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7개 공공도서관은 책이 부족하거나 전담 인력이 없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산곡남초, 청량초, 조동초 등 8개 초등학교와 부일중, 구월중, 부평중 등 7개 중학교, 인천남고, 산곡고, 산마을고 등 5개 고교에 도

서관 운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화도진도서관, 서구도서관, 연수도서관, 계양도서관이다. 지원 내용은 이들 학교와 도서관이 연계해 300~500권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한편 학생·학부모 도서 동아리 결성, 1일 독서교실 운영, 권장 도서 목록·도서구입목록 제공, 독서 관련 전시회, 평생교육 강좌 등이다.

기사출처: 인천일보 3월 19일재

한국화학연구원 'e-도서관 북카페' 오픈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재도)은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정보와 휴식의 공간으로 원내에 'e-도서관 북카페'를 열었다. 북카페는 책들만 빼곡했던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차를 마시며 휴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며 각종 전자잡지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했다. 또 지난 30년간 축적된 화학 관련 고급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서관과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를 통합하고 관련 정보는 연구원 포털사이트(www.kRICT.re.kr)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기사출처: 충청투데이 2월 25일재

뉴스킨, 희망도서관 사업

미국계 화장품 업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코리아(대표이사: 유병석, 이하 뉴스킨)의 '희망 도서관'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스킨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후원금으로 시골 초등학교에 희망 도서관을 마련해 준 것으로, 뉴스킨은 3월 7일(목) 충북 옥천군 소재 안내 초등학교에 '제1호 뉴스킨 희망도서관'을 연데 이어 7일(금) 인근 충북 문광 초등학교에 '2호 뉴스킨 희망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교실을 개조해 만든 도서관은 도서 4600여권은 물론, 프로젝트, 롤

스크린, LCD TV 터치스크린, 음향 장비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정보검색 장비 외에도 책걸상 및 개인 사물함 등의 다양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뉴스킨은 자체 후원회의 1% 나눔을 통해 모은 금액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해왔고 앞으로 해마다 소외된 지방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기증할 방침이다.

기사및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3월 7일재

KITE, 두바이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진출

국내 기록물관리 전문업체인 (주)케이아이티이(KITE)(대표이사: 채종호)는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두바이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현지 기업 모하메드 A. 알 옴란 그룹과 「두바이 전자도서관 및 전자정부 구축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KITE는 앞으로 10년간 두바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게 되어, 내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전자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두바이 정부도 이미 8500만 달러 규모의 도서관 전산화사업 예산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KITE는 이번 두바이 프로젝트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및 도서 유통 전문회사인 웅진그룹의 자회사 (주)북센 등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3월 19일재

육군 17사, 인천사랑 병영도서관 개관

육군 제17보병사단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인천사랑 병영도서관'을 개관했다. 17사단 예하 승리부대는 부대 내 도서관을 확장, 부대가 보유한 책 500여권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기증한 1천700여권을 더해 모두 2천2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인천 내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가 협력해 만든 시민협의회는 도서 기증을 포함, 도서관 내부 개조와 비품 지원 등 2천여만원을 부대에 지원했으며 앞으로 매년 100-200권 가량의 신간도서를 기증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3월 20일재]

국외소식

중국국가도서관, 서비스 향상 시책 발표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중국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용자 서비스 향상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책은 “국민의 기본적이고 문화적 권익을 확보하자”는 중국공산당 17기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향상 시책으로 2월 7일(목)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드는 비용이 인하 또는 폐지되었다. 이용자 카드 등록과 연회비가 폐지되어 신분증 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복사, 문헌배송, 문헌검색 등의 비용인하, 디지털 자원의 무료 이용 등이 가능해졌다.

향후 입법 등 정책입안 관련 서비스,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 등을 위한 포럼과 문화강좌, 장애인서비스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며, 국가도서관으로서 중국내 도서관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http://www.nlc.gov.cn/en/news/nlcnews_2008021901.html]

美텍사스州 SMU, 부시 기념도서관 건립지로 선정

미국 텍사스 주(州) 델러스 소재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이하 SMU)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건립지로 선정되었다. SMU는 같은 주에 위치한 베일러대학, 델러스대학 등과 경합을 벌인 끝에 도서관 건립지로 선정되어, 2월 22일(금)에 도서관건립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건물의 설계는 예일대 건축대학원의 로버트 스티 학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1911년 설립된 SMU는 감리교 대학으로 그 동안 부시 행정부 시절의 문서를 소장할 도서관과 박물관, 공공정책 연구소 등의 건립지 후보 1위로 꼽혀왔으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등을 문제삼은 감리교 목회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서관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SMU는 영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의 모교이기도 하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월 24일재]

UC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 신축

한국 고서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관련 도서와 자료 100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UC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이 3월 17일(월) 신축·개관하였다.

신축된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그동안 듀란트 홀과 캘리포니아 홀, 리치몬드보존소, 중국 현대사자료 연구소, 마펏도서관 등 5곳에 분산 보관되었던 한국 관련 자료들과, 리치몬드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던 한국 고서 4,000여권 등이 한 곳으로 통합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자료 열람과 한국학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한국일보 3월 18일재]

미 의회도서관, 디지털보존 프로그램 뉴스레터 발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현재 의회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보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뉴스레터의 발간을 3월부터 시작하였다. 의회도서관의 국가디지털정보인프라 및 보존프로그램(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이하 NDIIPP)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간의 국가네트워크 구축프로그램이다.



[NDIIPP 홈페이지,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

이 뉴스레터의 목적은 NDIIPP와 100여 개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등 파트너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간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뉴스레터의 창간호는 3월 3일 발간되었으며, 새로운 디지털 보존 협력기관들에 관한 뉴스, 관련 보고서와 발표자료, NDIIPP의 책임자인 Martha Anderson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 실려있다.

NDIIPP의 뉴스레터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http://www.loc.gov/rss/> 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하면 된다.

[기사출처: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news/2008/20080303_news_article_newsletter.html]

OCLC WorldCat, 중국국가도서관 서지레코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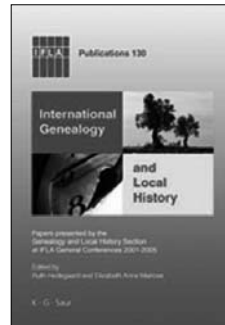
아시아 최대 규모인 중국국가도서관의 서지레코드가 OCLC WorldCat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소장한 레코드의 포맷을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08년에만 약 150만 건의 레코드를 OCLC WorldCat에 추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국가도서관에서 WorldCat에 추가하는 서지레코드는 한자로 보여지게 되며,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2008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변환된 레코드를 추가할 예정이다.

중국내 약 100여개의 학술기관에서 OCLC의 FirstSearch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책 서비스인 NetLibrary는 중국 내 80여개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OCLC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 도서관의 정보요구 증가에 부응하고자 2007년 7월 베이징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기사출처: OCLC Abstracts 11(9), <http://www.oclc.org/us/en/news/releases/20085.htm>]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International Genealogy and Local History』 발간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은 총서 제 130권으로 『International Genealogy and Local History』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족보 및 지역사 도서관분과(Genealogy and Local History Section)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행사안내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기록관리학회(회장: 강순애)는 4월 18일(금)과 19일(토), 부산 신라대학교 공학관 101호에서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프로그램

- 기록관의 이용자서비스 확장을 위한 교육적 기능 연구
/김희정(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사진기록물의 정리, 기술에 관한 연구 : 최민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박치흥, 허희진, 안나(부산대학교 박사과정)
- 행정박물관의 해외사례 연구
/나영선, 왕영훈, 양월운(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 대통령기록관 전시프로그램 사례연구
/이숙경(대구시청 기록연구사)
- 국공립 대학기록관의 현황과 과제 /이주연(부산대학교 강사)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10차 도서관장 회의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 권영탁)에서는 4월 24일(목)과 25일(금),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 10차 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협회 김태승 회장이 축사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격려사를, 회원교인 세명대학교 김광립 총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 〈주제강연〉
- 대학도서관의 현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 전략

/곽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대학도서관의 환경과 도서관장의 역할

/최은주(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와인과 문화/김준철(제이시 와인스쿨 원장)

〈신기술동향 소개〉

· 전자정보의 가치/전용수(엘스비어 코리아 사장)

· 대학도서관의 정책방향 /박춘란(교육과학기술부 국장)

한국문헌정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008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와 공동으로 2008년 4월 25일(금)과 26일(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도서관 경영 일반”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08년 2월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정년하신 유소영 교수의 기념 논문집 봉정식이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 프로그램

- 도서관 아동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윤희운(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서울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실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조찬식(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 방안에 관한 연구
/표순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에 대한 상시적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방안
/정현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관)
- 학교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 도입에 관한 연구
/정미경(인화여자중학교 사서교사)
- 이용자와 고객의 개념에 대한 고찰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사서」과목의 교사 자격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 업능력 평가연구
/이병기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